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㉔

선원총림의 조직과 기구(4) - 지장(知藏)·지객(知客)·지욕(知浴)·지전(知殿)

교학과 외전까지 통달했던 지장

지장은 수행 쪽인 6두수 가운데 하나로서 수좌와 서기에 이어 제3위이다. 그래서 제3좌(第三座)라고도 한다. 또 지장을 장주(藏主)라고도 하는데, 장경각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지장은 대장경과 기타 전적(典籍) 등을 보관하는 당우 즉 장전(藏殿)·장경루(藏經樓)·장경각을 관리하는 소임이다.

장경각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로지 대장경만을 보관하는 곳은 아니다. 기타 경전과 어록 등 전적을 함께 보관·관리하면서 대학의 도서관처럼 열람과 대출 기능까지 갖고 있다. 지장(장주)은 도서관장인 셈이다.

〈칙수백장청규〉에는 지장의 역할에 대해 “지장은 경장(經藏)을 관장하며 겸하여 교학까지 통해야 한다(兼通義學)”. 지장은 항상 도서의 목록을 대조해 빠지거나 분실된 것이 없는지 확인·보충 하며, 습기가 차면 통풍을 시켜 주어야 하며, 해진 경권(經卷)은 다시 손질해야 한다. 만약 대중이 열람하고자 하면 장부에 기록한 다음 함(函)을 열어 열람케 한다. 열람이 끝나면 장부와 대조한 다음 제자리에 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경각, 열람·대출 비중 높다

〈칙수백장청규〉의 서술이 원대(元代) 당시의 모습을 가깝게 전하고 있는 것이므로, 장경각은 보관 기능보다는 오히려 열람·대출에 더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장경각 설치가 선승들이 좌선 시간 외에는 경전과 어록 등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오로지 선불교는 불립문자로서 일체 경전을 보지 않았다”고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불립문자의 철칙을 위배하면 마치 마구나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칙수청규〉에는 이런 내용을 더욱 뒷받침하는 설명들이 담겨 있다. 좀 더 깊이 있게 〈칙수청규〉를 살펴보면 “본래 선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는 교외별전이다. 그럼에도 장전을 관리하는 지장을 두는 것은 불(佛)이 하신 말씀을 갖고 교율(敎律)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할 진대 어찌 승(僧)으로서 부처님의 언행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증득하고자 하는 바는 문자에 빠지지 않고 언행의 표면을 뛰어 넘어 자성의 묘함을 보는 데 있다. 조사의 뜻은 두루 경전을 열람해 외모(外侮, 외부인의 모함, 비판 등)에 무궁하게 대응하기를 바라기

장전 관리는 부처의 가르침 교율로 삼기 때문 ‘칙수청규’ 선과 경전의 관계 부즉불리로 설명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부즉불리(不即不離)라는 것이다. 나중에는 간경하는 대중이 많아서 동장(東藏)과 서장(西藏)으로 소임을 나누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우리가 증득하고자 하는 것은 문자에 빠지지 않고 언행의 표면을 뛰어 넘어 자성의 묘함을 보면 된다”는 구절은 문자에 빠질까 지레 겁을 먹고 경전을 보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선 공부를 하는 이들은 대부분 불립문자(不立文字)를 금과옥조로 여긴 나머지 경전이나 조사어록 등은 일체 보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일체 경전을 보지도 않고 또 경전을 보면 오히려 정통 선승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우리나라 속담을 연상케 한다. 이것은 대병(大病)이요, 병중병(病中病)이다.

또 외모(外侮)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전을 공부해야 하며, 선과 경전(교학)은 딱 붙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뗄 수도 없는 부즉불리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나중에는 간경하는 대중이 많아서 지장 소임을 동장(東藏, 동지장)과 서장(西藏, 서지장)으로 나누었다. 그만큼 경전을 열람하는 선승이 많았던 것이다.

1103년 장로종쇄 선사가 편찬한 〈선원청규〉는 백장화상의 정신, 즉 고청규(古淸規)의 본 모습을 계승하고자 노력한 청규서이다. 여기에는 “장주는 금문(金文, 경전을 관장한다. 궤안(案, 책상)과 차(茶)·기름(油)·불(火)·향촉(香燭)을 준비해 간경하고자 하는 대중에게 봉사해야 한다”라고 거의 단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칙수백장청규〉 시대(원대)에는 물론이고, 〈선원청규〉 시대 즉 송(宋) 전기(前期) 무렵에도 이미 상당한 선승들이 좌선 시간 외에 경전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선원총림에서 간경(看經)은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또한 당대(唐代)에는 경전을 장경각 내에서만 볼 수 있고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었다. 장경각을 개방하는 시간은 새벽 기상 이후부터 저녁까지인데 공양 전까지만지, 취침 전까지인지는 분명치 않다. 지전(장주)에

대해서는 교학은 물론이고 그 밖의 외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마 모든 전적에 능통하지 않고는 지전의 책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객(知客)은 6 두수의 하나로 빈객을 접대하는 소임을 맡고 있다. 객승(客僧)과 신도들을 영접 및 안내하고 방사(房舍) 등을 배정·관리한다. 그래서 객전(典客)·객사(客司)·전빈(典賓)이라고도 한다.

〈칙수백장청규〉에는 “지객은 빈객을 영접하는 소임이다. 무릇 관원(官員)·단월(신도)·존속(고승)·제방의 명덕(明德)들이 오면 향과 차를 준비하여 영접하고 행자를 시켜서방장(주지)에게 통보한다.

그런 뒤에 방장실로 가서 뵈게 한 다음 방사로 안내한다. 만약 일반적인 손님이라면 객실에서 차를 대접한다. 새로 온 객승(新到)에게는 모름지기 편안하게 해야 한다. 부질없이 손님에게 기추(家醜, 사원의 단점)를 말하지 말라. 단과료(旦過寮, 객실)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 두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객(知客) 밑에서 일을 거드는 소임을 객두행자(客頭行者)라고 한다.

빈객 접대 지객, 욕실 관리는 지욕

지욕은 6 두수의 하나로 욕실(목욕탕)을 관리한다. 다른 말로는 욕주(浴主)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욕두(浴頭)라고 하는데 욕두는 지욕 밑에서 욕실의 일을 돕는 소임으로 주로 행자들이 맡는다.

선종사원에서 목욕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칙수백장청규〉에는 동절기에는 4·9·14·19·24·29 등 5일마다 한 번씩 했고, 하절기에는 매일 목욕을 했다(寒月五日一浴, 暑天每日沐浴)고 전한다. 이렇게 목욕을 자주 한 것은 중국 강남지역(선원이 집중돼 있는 곳)이 고온 다습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여름에는 기온이 37~45도 정도이며 습도는 70~80%에 달한다. 또 1년에 230일 정도가 흐리거나 비가 오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목욕과 삭발은 포살일(보름날과 그믐날) 하루 전인 음력 14·29일에 했고, 계절 구분 없이 보름에 한 번씩 했다. 이것은 (사분율)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지욕에 대해서는 이미 선종사원의 가람구조에서 자세히 기술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욕실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시간은 제한이 있었다. 욕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욕주(浴主)가 나무판

을 한 번 치면 욕실로 들어가고, 두 번 치면 목욕을 시작한다. 그리고 세 번째 치면 열은 목욕을 끝내고 나와야 한다. 군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욕실 문을 열어 놓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전, 법회 예·법석 담당

지전은 6두수(六頭首)의 하나로서 전주(殿主)라고도 한다. 조석 예불과 사시(巳時)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불전(佛殿) 즉 대웅전의 관리와 청소를 담당한다. 또 향(香)·등불(燈) 등 일체를 맡고 있다. 그밖에 선원총림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와 법회 때 집전 등 모든 예식(禮式)과 법식도 모두 지전이 담당한다.

우리나라에는 지전(知殿)에 대한 이칭이 많은 편이다. 지전(知殿)·지전(持殿)·부전(副殿)·노전(爐殿) 등이 있는데, 持殿(지전)은 知殿(지전)의 잘못이고 부전(副殿)은 정부(正副)의 개념으로서 노전(爐殿)이 정(正)인데 비해 부전(副殿)은 노전을 돕는 위치라는 의미이다.

노전(爐殿)은 향로전(香爐殿)의 준말로서 적멸보궁이나 대웅전의 지전을 가리킨다. 향로전은 적멸보궁의 향로(香爐)를 관리하는 향각(香閣)이라는 뜻으로, 소임자가 여기서 기거해서 노전이라고 한 것이다.

운허 스님의 〈불교사전〉에 따르면, 대웅전이나 적멸보궁의 불단을 맡은 소임을 노전(爐殿)이라고 했고, 큰 방 불단을 맡은 소임을 부전(副殿)이라고 했다. 선종사원에서는 ‘지전(知殿) 외에는 모두 쓰지 않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전 외에 무량수전, 극락전, 관음전, 지장전 등 기타 전각을 관리하는 소임도 ‘지전’이라고 한다. 이때는 전각 이름을 붙여서 ‘관음전지전’ ‘명부전지전’이라고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지전 가운데서도 노전 스님이 가장 어른이고 상위이다.



윤창희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changhwa@hanmail.net

총림 곳곳은 일까지 담당하며 수행 정진

6두수, 장경각부터 욕실·대웅전까지 관리



불경이나 목판을 보존하고 있는 전각을 해인사에서는 법보전이라고 부른다. 해인사 법보전에는 세계문화유산인 고려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다.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이: 120cm
- 원통폭: 45cm
- 밑바닥폭: 30cm
- 무게: 25kg